



2021 YANG YOUNG HOE

## 스물다섯번째 이야기

# 걸으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 문화기행④ 서울 성곽(흥인지문~숙정문) 산책]



지난밤의 천둥과 빗소리는 아마도 오늘의 저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위한 것이었나보다. 일상의 공간을 떠나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동대문역 흥인지문 공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 멀리서 한 명 한 명 손을 흔들며

웃음 가득 머금고 다가오는 얼굴들이 반갑다. 아쉽지만 포항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경주 집사님을 제외한 BEE수 팀원이 다 모였다. Off-line 정모이다. 지난 6월, 'BEE수'에 김종영 목사님의 서울 성곽 둘레길 기고 후, BEE수 팀이 다 같이 함께 가자는 의견이 오늘 실현되는 것이다. On-Line에서만 만난 팀원들을 직접 보니 더 반갑다. 사랑부 아이들과 영상예배도 드리고 곳곳을 산책하며 지내신다는 김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 세 아이와 더 밀착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영 자매님, 장애 아이들과 수업하며 지금은 이사해서 김 목사님과 한 단지 이웃이 된 최선 집사님, 격주 On-Off Line으로 아이들과의 만남에 지친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나온 나, 다들 날씨 만큼이나 가벼운 차림이다. 조선 왕조의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나타내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다는 한양도성(1396-1910, 510년)! 우린 그 도성 따라 걷는 길을 흥인지문에서 시작하였다.

흥인지문 공원 옆의 성곽을 따라 시작한 길은 약간의 경사로 인해 첫 호흡부터 숨이 차다. 도성 밖 창신동 뒤로 천천히 올라가는 길에 작은 카페들과 산책하러 나온 동네 주민들이 반갑다. 넷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상을 나누며 가는 길이 반가움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낙산 공원까지 낮은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성장하는 십 대 아이들이 자기 생각과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부모로서 더 고민이 많아진다는 주영 자매의 이야기 속에, 아직 자기중심성이 강한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심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의인 옴의 고난이 시작되는 10월 큐티를 하면서 의인이 더 고난받는 아이러니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찢 사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낙산 공원에 도착

하였다. 야경이 절경이라서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낙산 공원은 한낮에 찾아와도 아늑하고 가을바람이 시원하였다. 낙산 공원을 지나 도성 밖으로 성곽을 따라 걷는다. 처음 두세 시간을 예상하고 걸었던 걸음이 조금 지칠 때쯤이면 높고 푸른 하늘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걸음을 재촉하게 한다.

도성 밖 성곽을 따라가는 길은 도성의 옛 모습 보다는 젊은 예술인들의 흔적과 도심을 벗어난 삶의 터전이 들성들성 자리하고 있었다. 소박한 안식이 느껴진다. 오래된 샴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려는 모습은 어쩌면 번쩍이는 도심에서 잃어버린 지난 삶에 대한 애착일지도 모르겠다. 성곽 밑의 밭과 울타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혜화문에 이르게 된다. 성곽과 성곽 사이를 뚝 끊어 놓은 도로 위로 현대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들이 지나다닌다. 갑자기 맞이하게 된 현대의 모습이 옛 성곽을 걷는 감흥을 조금은 흐리게 한다. 건널목을 지나 혜화문을 통과하여 다시 성곽을 따라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은 성곽길과는 달리 가옥들과 학교, 상점들이 즐비하게 이어져 있다. 성곽을 바라 보면 600년 전에도 이 길 위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삶이 여기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600년 전에도 있었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분주함은 지금 여기 곳곳에 배어있다. 성곽 터 위에 담을 쌓아 집의 경계를 세우고,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운동장이 있고,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도 나란히 있다. 축구부로 유명하고 푸른 인공 잔디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경신 고등학교의 담에도 옛 성곽의 흔적이 있다. 삶의 골목길에는 이렇게 과거의 시간 위에 현재의 삶이 이어져 오고 있고 또 다시 현재를 닫고 미래의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땅 위의 삶은 이어져간다.



한국의 천재(?)들이 모인 서울 과학고와 왕돈가스 맛집을 지나면서 성북동을 바라보며 발길을 재촉한다. 한 시간만 더 가면 오늘 최종 도착지인 창의문에 이르게 된다는 김 목사님의 안내 말씀이 있었지만 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성곽 한복판에 있다.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하고 쉬는 간격이 짧아지면서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평소 몇 번을 다니셨던 목사님은 평온한데 우리 셋은 힘에 부치고 있다. 새삼 운동의 중요성이 느껴진다.

용이 누워있는 모습을 한 와룡공원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절정이라고 한다.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계라고도 하는 이 와룡공원은 아직 단풍이 들기 전이라 조금 아쉽지만, 공원에 잠시 앉아 숨을 돌린 후 다시 긴 언덕 돌길을 따라 걷는다. 와룡공원 돌계단은 언덕길같이 조금 경사가 있지만, 성곽에서 도성 밖을 내다보는 경치는 너무나 멋지고 시원하다. 시원한 공기를 한 모금 들이쉬고 성곽 밖 성북동을 바라보면서 말바위 안내소를 향한다.



중간 전망대에서 성북동에 있는 정치·경제·연예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대한 주택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없는 이들의 형통함을 보며 외쳤던 시편 기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더불어 그들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항상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광스러운 곳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고백하며 잠시나마 성곽에 앉아 영적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코로나로 인해 안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주말이 되어 자연 속으로, 깨끗한 공기를 찾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성곽 돌레길을 돌고 있는 듯하다. 성곽 돌담길을 걷고 걸어서 드디어 말바위 안내소에 도착하였다. 전망대 위에서 서울 중심과 외곽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 길을 되돌아 보았다. 거의 세 시간 넘게 걸어온 듯하다. 안내소에서 인증하고 출입용 목걸이를 걸고 북악산 탐방로로 입장을 하였지만 몇몇 곳이 제한되었고 목사님을 제외한 우리는 배고프고 지쳤다. 창의문까지 가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열의를 담고 싶지만 우리는 배고픔이 더 급하였다. 얼렁뚱땅 합의(?)로 숙정문

까지만 가기로 하고 숲길 같이 약간 험한 길을 지나 숙정문에 도착해보니 자그마한 성문이었다. 도성의 4대문(홍인지문, 돈의문, 승례문, 숙정문)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4소문(혜화문, 소의문, 광희문, 창의문) 정도의 크기인 듯하다. 숙정문에서 시작되는 성곽 길은 외지고 쓸쓸해 보이는 것은 이곳이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이 적고 다른 곳보다 험준한 산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실질적인 성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숙정문 서북 쪽으로 있는 창의문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넷이서 숙정문 앞에서 한 컷을 찍고 배고픔을 안고 삼청동 쪽으로 재촉하며 내려왔다. 상점과 주택, 오가는 자동차들, 사람들의 말소리 등등 이제 자연을 벗어나 삶의 터전 속으로 다시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스며온다. 삼청동의 여러 맛집을 지나 ‘두부 전문점’으로 들어가 앉자마자 주문한 점심은, 시장이 반찬인지 맛이 좋아서인지, 정말 맛있다. 더구나 함께하는 이들이 좋아서 더 맛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이(거의 2만 보) 걸었음을 체감하며 운동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짐이 아쉽지만 버스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걸음으로써 생각이 다듬어지고 건강이 다져지며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한 기도가 간절해지는 반나절의 깊은 산책이었다. 단풍이 짙게 물든 가을 녀에 다시 한번 다녀오고 싶은 길이다.

[글쓴이 김옥숙 권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며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하며 새가족 사역을, BEE에서는 ‘BEE가 오는 수요일’ 팀장과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선교지  브라질



[대표 음식-슈하스코]

육식이 주식인 브라질의 대표 음식으로 1m가량 긴 쇠꼬챙이에 소, 닭, 돼지, 양의 다양한 고기와 파인애플, 양파, 호박 등 채소, 과일을 꽂아 굵은 소금을 뿌려 숯불에서 돌려가며 굽는다. 구우면서 먼저 익은 겉면을 칼로 저며내어 먹고 다시 안쪽 부분을 익혀가면서 먹는 음식이다. 수 세기 동안 gaucho(남미 카우보이)들이 즐겨 먹었으며 특히 생일이나 결혼 등 큰 행사에 꼭 올리는 음식이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매일 아침 8:00! BEE 선교사역을 위한 5분 중보 기도! 깊어가는 가을, 114명의 기도의 용사와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요!
3. 10월 30일(토), 양재 BEE 기도모임 5주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동역자인 양재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4. 로마서 8장 암송! ‘BEE수’에서 8주 동안 로마서 8장을 복습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 ) 안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적어서 BEE수 편집팀장 김옥숙 개인 카톡이나 이메일([joyfuloksuk@hanmail.net](mailto:joyfuloksuk@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첫 번째 정답자에게 맛난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1-4절 답을 보내주신 고\*\* 집사님께 쿠폰을  
드렸습니다!

\*[8장 5-9절]

5. ( )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 )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 )이요 영의 생각은 ( )과/와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 )과/와 원수가 되나니 이는 ( )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 )에 있는 자들은 ( )를/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 )이 거하시면 너희가 ( )에 있지 아니하고 ( )에 있나니 누구든지 ( )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